

90年代는 環境의 時代

Lamar Alexander <美國 Tennessee州立大學 學長>

미국에서 환경문제가 강하게 인식된 것은 1970년대 초이고, 대기청정법과 환경보호협회 등 관계기관이 설립된 것도 이 시기이다. 또 에너지보전에 대한 의식이 고조된 것도 1970년대의 특징이며, 석유가격 급등을 초래한 미국인의 의식변화가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.

1980년대는 레이건정권하에 군사, 경제면에서의 국력 증강이 주장되어 환경면에서는 규제 완화의 시대였다.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부시 현대통령이 스스로 「나는 환경보호론자다」라고 언명, 동 정권하에 의회에서도 EPA를 하나의 省廳으로 독립시켜 대기청정법의 수정 안도 심의대상이 되었다.

1990년대는 이 흐름이 계승되어 1970년대와 같이 환경보호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다. 그것도 개인수준에서 환경보호의 경향이 고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. 현재도 중·고생 등 젊은 이들의 환경보호그룹이 창설되거나, TV에서도 환경문제가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. 이런 새로운 조류에서 원자력이 다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. 지금까지의 경향과 달리 원자력에 대해 좋은 의미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

“
이런 새로운 조류에서
원자력이 다시 부상될 가능
성이 있다. 지금까지의 경향과
달리 원자력에 대해 좋은
의미에서 관심이
높아지고 있다.
”



지금까지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는 별개로 대응왔으나, 앞으로는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. 현재 미·일간에는 통상문제가 난항하고 있지만,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할 협력과제로서 에너지·환경문제가 있다. 미·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아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지에 입각하여 장기에 걸친 연구협력을 추진해 갈 시기에 와 있다.